

결전의 주말·휴일... 표심잡기 총력전

광주 서울 보선 '조남일 후보 사퇴' 막판 변수 부상 여야 지도부 유세 지원 부동표 잡기·지지층 굳히기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3일 무소속 조남일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선거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의 사퇴에 따라 각 후보 측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한편 오는 마지막 주말과 휴일 집중유세를 통해 막바지 부동표 잡기와 함께 지지층 굳히기에 나서면서 '결전의 주말'을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여성(野性)회복과 일당 독점 타파를 원하는 광주 민심과 지역 시민사회 요구를 대응적으로 받아들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옛 통합당 출신 후보 사퇴는 서울 관악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상규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를 보선은 새누리당 정승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4파전으로 좁혀졌다.

◇ 조남일 사퇴, 누가 유리? =진보성향의 후보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5% 안팎으로 추정되는 조 후보 지지표의 항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반(反) 새누리, 비(非) 새정치민주연합을 주장한 만큼 우선 무소속 천정배 후보나 정의당 강은미 후보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천 후보 측이 선거 막판까지 조 후보의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야권연대를 의식한 여론 성향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 정승 후보도 결코 손해를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마지막 '결전의 주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경원 최고위원, 이근원 사

정의를 전호선 대표와 강은미 후보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 지지자들은 노동자,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성향 후보에 호응을 할 것"이라면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광주 정치혁명을 이뤄내겠다. 천 후보와의 단일화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의 사퇴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측은 지지층 결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한 뒤 강은미 시장과 무소속 단일화로 꿈을 접었던 이용선 전 국회의원이 이날 조 후보의 지원군을 자청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조영택 후보, 주승용 최고위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광주시민이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없었느냐"고 반문하고 "호남인이 목숨 바쳐 지켜 온 정당을 버리지 말고 개혁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호소했다.

◇ 마지막 '결전의 주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경원 최고위원, 이근원 사

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23일 광주를 찾아 정승 후보에 대한 집중 유세를 벌이며 막판 표심잡기에 힘을 쏟았다. 김 대표는 지원유세 도중 "이완구 총리가 경질되게 되면, 이번 기회에 전라도 사람을 한번 총리로 시켜주기를 대통령에게 부탁한다"고 "깜짝 제안"을 하며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막 휴일인 26일 문재인 대표가 다시 광주를 1박2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말에는 과로를 앓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집중 지원 유세를 벌일 계획이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남은 선거일까지 대규모 집중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유세차량을 이용해 행정동을 돌아가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도 전호선 대표가 지난 22일 광주를 찾아 주말까지 총 100시간 릴레이 유세를 강은미 후보를 지원한다.

한편 4·29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4~25일 양일간 실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전투표합시다"

2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주변에서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는 29일 실시되는 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사전투표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무원 연금개혁 실패면 야당 책임" 새누리 여론전

김무성 이례적 대국민호소문 발표... '문재인 결단' 압박

새누리당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압박하는 거담적 여론전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내달 2일까지 처리기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입법의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전날 제안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협상'을 거듭 제안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문'까지 발표했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새정치연합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의총을 마친 뒤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분관 앞 계단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자는 결의대회도 가졌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 분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의원들은 연금개혁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여론전은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성완충 정국'의 수세국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 공무원연금개혁 및 경제활성화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옛 새 남은 4·29 재보선에서 민생·경제 정당 이미지를 부각해 야당과 차별화하는 한편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애초 이날 보궐선거가 처리되는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 목소리로 공무원연금개혁에 야당과 문 대표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산자위 위원장 물러나는 새정치 김동철의원

"에너지 밸리·친환경차 산업 광주·전남 일자리창출에 앞장 원내대표 출마 호남 민심 결집"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지난 1년 동안 맡았던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물러나 다음 달 7일 처리되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다.

김 의원은 2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자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소회와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 밸리' 조성과 광주의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2일 국회 산자위 여야 의원들이 나주 혁신도시 내의 한전을 방문했는데.

▲ 에너지 밸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뤄진 행사다. 의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 에너지 밸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가.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광주·전남권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사회와 공동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한전이 에너지 밸리는 개념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 에너지 밸리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는.

▲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유치되고 1천여명의 전문 인력이 육성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화, 명실상부한 세계적 에너지 밸리로 거듭나게면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의 토요타시(市)나 영국의 캠브리지 사이언



스 파크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 광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은.

▲ 일단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의 그림은 그려졌다. 현대 자동차 그룹도 투자의 지도 강하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가시화돼야 한다. 특히,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한다면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다.

- 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업이 주목하다.

▲ 두 차례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광산업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됐다. 이제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광주의 전략산업은 이제 한가지로 되지 않는다.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분야로 접근,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 원내대표 출마 여부.

▲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국회 산자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다음 달 원내대표 후보 등록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 출마 결심 배경.

▲ 처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 민심과 중도 진영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과거 우세 지역구에서 고전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나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데다 중도 개혁적 정체를 갖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화합과 변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대법관 장기공백 막으려면 박상욱 자진사퇴해야"

국회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측 위원들은 23일 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혜철,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야당측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

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더욱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과 추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박 후보자가 이제는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날카롭게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4. 28(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처 매운 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응
3.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4.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5. 소액투자자로 월세받는 비법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부동산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유한메디카 클리코엔(N) 골드

↓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꺽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하세요
문의 H.P.010-3598-7080/1899-3975

30%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축하화환3단
결혼, 고희, 전사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동 협 (김희진)** 175359-56-130180